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8~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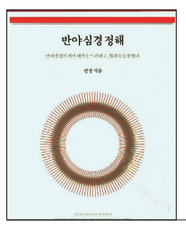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도표로읽는천수경입문	목경찬	민족사
2	불교성전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3	법성게(마음하나에펼쳐진우주)	의상조사/정화	법공양	8	752게송법구경(지혜의말씀담마파다)	법구 찬/유지난 등 역	운주사
4	나를찾아가는여행(미국도서대상동아시아종교부문입상작)	최석원	사유수	9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5	붓다중도로살다(깨달음은지금여기삶이되어야한다)	도법 지음	불광출판사	10	티벳스승들에게깨달음의길을묻는다면(람림=보리도차제)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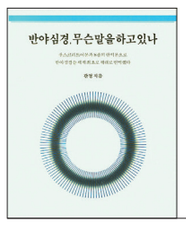
책세상

정확하고 바르게 집대성한 '반야심경' 해설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반야심경 정해
관정 스님 지음
알아차림 펴냄
6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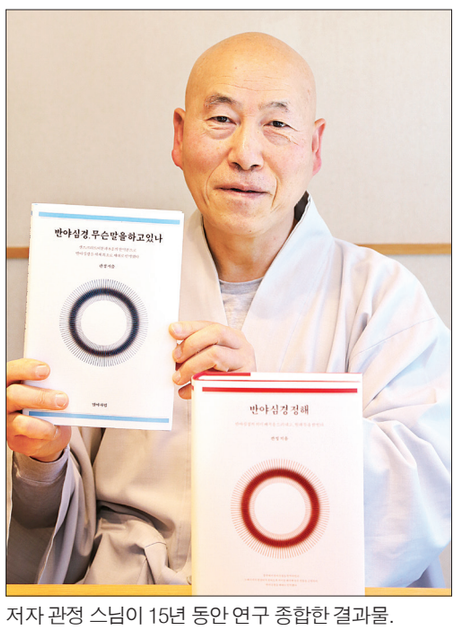
반야심경,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관정 스님 지음
알아차림 펴냄
16,000원

〈반야심경(般若心經)〉은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다. '팔만대장경의 정수를 담은 핵심 경전' 이며, 260자 짧은 경문 안에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대승경전으로 불경 가운데 가장 대중적이다.

산스크리트어본 및 8종의 한역본 연구
비교분석 및 추가 등 종합집대성 결과
〈아함경〉 등 경전 통해 누락부분 참고
"반야심경 수행 방법을 말해주는 경전"

〈반야심경〉을 종합하고 분석한 책이 출판됐다. 〈반야심경 정해〉와 〈반야심경, 무슨 말을 하고 있나〉는 저자 관정 스님이 15년 동안 연구하고 종합한 결과물이다.

관정 스님은 "〈반야심경〉은 총 8종의 한역본(漢譯本)이 있고,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티베트어 몽골어 만주어 영어 불어 독일어 등 수많은 언어로 수백 종의 번역본이 나와 있다"며 "하지만 그 뜻을 알려면 너무나 어렵다.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번역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말로 번역되어 있거나 완전히 엉뚱한 뜻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연구 이유를 밝혔다.



저자 관정 스님이 15년 동안 연구 종합한 결과물.

관정 스님은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역본을 연구했고 한문 〈반야심경〉에서 잘못 번역된 부분을 찾아 바로잡았다. 아울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쉬운 말로 번역했다. 연구 과정에서 스님은 〈아함경〉 〈유마경〉 〈중론〉 〈구사론〉 〈유식론〉 등 불교 경전을 참고해 〈반야심경〉에 나오는 정확한 뜻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반야심경은 원래 신비한 주문을 말해주기 위한 경이 아니라 반야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 방법을 말해주기 위한 경이고, 반야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온을 관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이라 강조했다. 또 "현장법사는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경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경의 60프로의 내용을 빼버리고 번역했고, 뺀 부분에 반야심경의 핵심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반야심경 정해〉는 800여 쪽에 달하는 종합 안내서이다. 총 17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내용은 산스크리트어와 8종의 한역본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했다. 〈반야심경〉에 대한 전체 구조를 설명하고 단락을 구분해 상세히 안내했다. 7장에서는 중국 선불교가 반야심경을 왜곡한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부록에는 티벳트본 〈반야심경〉 번역과 유식불교, 8종의 〈반야심경〉한역본의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추가했다.

〈반야심경, 무슨 말을 하고 있나〉는 〈반야심경 정해〉의 핵심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책이다. 총 6장과 부록으로 구성됐으며 위빠사나 지혜를 계발하는 방법인 아나빠나사띠 수행 방법을 추가했다.

관정(觀頂) 스님은 1959년 경남 함안서 태어났으며 부산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부산대 불교학생회에 가입 후 선수행과 불전연구를 이어왔다. 1985년 전국 대학생 학술연구발표대회(문교부후원, 동아대학교주관)에서 〈금강경 국역 본에 나타난 문의미(文意味) 변이와 그 원인분석〉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해운대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교직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선수행을 이어왔으며 위빠사나금정선원을 운영했다. 2019년 2월 대한불교조계종 대종사 통도사 반야암 지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현재 영축산 기슭에 자리한 암자에서 집필 중이다. 유튜브 TV 관정스님 반야심경 강의를 통해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저서로는 〈마하시 사야도의 위빠사나 명상법〉 〈대승기신론 속의 사마타와 위빠사나〉 〈걷기명상〉 등 다수를 저술했다.

"놀라움의 크기만큼 행복감도 커져"

고양이가 주는 행복, 기쁘게 유쾌하게
보경 지음/스노우캣 그림
불광 펴냄1만 8천원

몇 해 전 어느 겨울날, 길고양이 한 마리(냥이)가 산중암자에 사는 스님 앞에 불쑥 나타났다. 그날 이후 낯선 고양이와 어색한 동거를 시작한 스님은 사람과 닮은 듯 다른 고양이의 생활을 지켜보며 존재와 삶을 생각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글로 적어 왔다. 그 첫 기록이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됐고, '바라보기' 와 '기다리기' 가 중심 이야기였다. 이어서 〈고양이를 읽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두 번째 책에는 고양이와 무더운 여름을 함께 나며 터득한 '느리게' 그리고 '느긋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담았다. 이번에 출간된 〈고양이가 주는 행복, 기쁘게 유쾌하게〉는 앞선 두 책을 잇는 보경 스님의 고양이 에세이 시리즈 마지막 편이자, 매 순간을 기쁘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법을 성찰한 글이다.

보경 스님과 냥이가 함께 지낸 지 햇수로 6년째에 접어들었다. 스님이 십수 년간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산중암자로 돌아온 2017년 겨울 저녁,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은 굶주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꼬리 없는 누런 고양이에게 우유와 토스트를 건넨 것이 이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다. 산중암자에 불쑥 찾아든 야지의 고양이는 이제 스님의 거처인 송광사 탑전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아 그 주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안온하게 지내고 있다. 도 한번 닦아보겠다는 출가도 아니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버린 그 태도가 너무나 태연하여 스님은 꼼짝없이 고양이를 보살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스님과 냥이가 알콩달콩 지내는 사이, 계절이 오가듯 많은 인연이 오고 갔다. 엄마 이쁜이와 주니어 이쁜이, 주니어 이쁜이가 낳은 여러 마리의 새끼 고양이들… 여러 차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목격하는 와중에 스님 마음속에는 잊지 못할 추억과 이야깃거리가 수북이 쌓여 갔다. 단풍이 무르익듯 깊어진 스님과 고양이들의 나날을 담은 이 책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어찌할 수 없는 인연의 오고 감과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다. 인적 드문 산중암자에서 '냥이선사' 로부터 터득한 농밀한 삶의 지혜다.

보경 스님 고양이 에세이 마지막 3편
'냥이'와 함께한 봄·가을 이야기 실어
어쩔수 없는 것들과 사이좋게 사는법

사람에게는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의 농사가 있다.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아야 한다. 보경 스님은 50대에 접어들어 책 읽고 글 쓰며 불교를 인문학적으로 해설하는 일로 인생의 후반부 계획을 세웠다. '반짝이는 번개 속에서 글을 읽더라도 읽는 값을 치러야 한다' 는 말을 모토로 삼아 삶과 수행에서 얻은 통찰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려 애쓰고 있다. 지식이든 지혜든, 자신이 아는 것을 남들과 나누지 않고 홀로 삭이는 것만큼 비참한 일도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에 담긴 스님의 메시지는 '경이롭게 바라보기' 다. 평생 혼자 사는 데 익숙한 스님에게 찾아온 낯설고 신비로운 존재, 사람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양이의 하루하루를 지켜보면서 알게 된 행복의 비결이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놀라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별 볼 일 없다는 듯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시시하다. 그런 삶에는 즐거움이 적다. 작은 것 하나도 경이롭게 바라보면,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것들 안에 있는 특별함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면 매 순간이 놀랍고 흥미로워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 선사와 현자 들이 하나같이 행복을 좇지 말라고 가르친 까닭이다. 행복은 외적 발견이 아닌 내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고양이들은 어디서든 잘 산다. 고양이들이 낯선 곳이라도 태연하게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들의 생각이 바람과 같아서 불현듯 옮겨가고 지난 과거는 머릿속에 남기지 않아서다. 그리고 매사 '알맞게' '지나치지 않게' 살기 때문이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는 선종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하는 존재가 바로 고양이들이다. 마땅히 사람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은 삶을 옥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거라는 헛된 기대와 환상도 마찬가지다. 집착과 욕망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공범이다. 지치거나 치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세상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욕망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 좋은 삶이란 생각을 좇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일 없이 지금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 어제처럼 오늘을 사는 것, 곧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세야말로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힘이다.

김주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